

「'89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성림축산

취재 : 김 동 성



검정소에서 챔피언 9두 구입, 기초돈군 구성

본회 검정소로부터 '89년도 검정 성적 우수농장으로 선정돼 2월 26일 열린 총회 회의장에서 전동용 회장으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은 성림축산(경남 김해군 주촌면 원지리 220번지, 전화<0525>31-1145, 13

17)을 찾았다.

성림축산(대표 : 홍성태, 51세)은 '89년도에 검정소에 출품된 종돈장의 검정돈 챔피언 출품횃수, 출품두수, 선발지수, 합격률, 합격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1,067.5점을 얻어 송파농산, 태화축산에 이어 3위를 차지, 우수농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성림축산의 '89년도 검정성적을 보면, 일당증체량이 910g으로 검정소의 전체 평균인 890g보다 20g이 높았고, 사료요구율도 2.47로 검정소 평균 2.65보다 0.18이 낮았다. 또 등지방두께는 1.45cm로 검정소 평균인 1.64cm보다 0.19cm 얇았고, 선발지수도 197점으로 검정소 평균인 182점보다 15점이 높았다.

성림축산은 그동안 양계를 하다 12년전인 78년부터 F₁ 모돈을 구입하면서부터 양돈을 시작했다. 종돈 사업은 '84년부터 검정소에서 검정돈을 구입해 오면서부터 본격 시작했다. 84년부터 검정소에서 챔피언 또는 챔피언 동복을 중심으로 고능력돈을 대량 구입했다. 챔피언만 해도 9마리나 구입했다. 당시에 경매에 나오는 챔피언과 동복 등을 거의 대부분 김해 양돈농가들이 사가, 김해지역 양돈농가들의 경매참가 유무에 따라 당일 경매 가격이 춤을 추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후 성림축산은 검정소에서 고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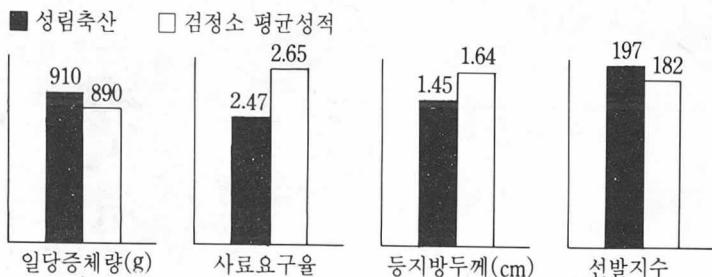
종돈 부족으로 종돈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86년부터 영국 NPD에서 연 1~2회 고능력 종돈을 수입, 검정돈과 함께 기초돈군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종돈은 암돼지 159두와 수돼지 37두 등 모두 196두이다.

연간 1,000두 검정할 수 있는 자체시설 갖춰

성림축산은 종돈개량을 위해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하는 것 외에 협회에서 실시하는 농장검정과 자체 농장검정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검정소엔 87년 1월부터 출품을 시작, 지금까지 140두를 출품했고, 앞으로도 매월 2~3복을 출품할 계획으로 있다. 자체농장검정을 위해 제1검정소 규격과 동일한 검정돈방 102개를 지어 수돼지는 2두, 암돼지는 4두씩 수용해 연간 1,000두를 검정하고 있다. 특히 검정소에 출품한 종돈의 동복은 전두수 자체농장검정을 실시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all in, all out 시스템으로 철저한 돈사소독 실시

성림축산은 500만원짜리 돼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88년 5월 20일 열린 44차 경매에서 성림축산이 출품한 대요크셔 챔피언이 경북 군위군에 소재한 상록원(대표: 정한수)에 경매사상 최고 가격인 500만원에 팔린 것이다. 당시 그 돼지의



▲ '89년도 검정소 합격돈(612두)과 성림축산 출품돈(29두) 성적

성적은 일당증체량 1,135g, 사료요구율 2.20, 등지방두께 1.19cm, 선발지수 241점이었다. 이 돼지는 영국 NPD에서 수입한 수돼지에 검정소에서 구입한 챔피언 동복 암돼지를 교배해 생산한 것이었다. 이 돼지의 동복도 선발지수 228, 232점을 기록했다.

성림축산은 이 돼지를 자체농장으로 갖고 오지 못하고 타농장에 500만원에 팔린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유전자 보전 차원에서 자체농장에서 이 돼지를 활용했다면 훨씬 종돈개량을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 종돈장에서 성림축산의 종돈을 구입, 그 후대를 검정소에 출품해 챔피언이 된 것도 3건이나 있다고 농장측은 밝혔다.

성림축산은 종돈의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ll in, all out 시스템을 도입, 돈방은 충분한 공백기를 두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성림축산의 홍성태 사장은 우리나라의 종돈개량 방향과 관련, 「농장 자체내에서 계통조성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계통조성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계통조성을 하는 농장에 재정적, 기술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정소에 대해서는 「현재도 검정을 잘 하고 있지만 검정소는 검정성적의 신뢰성 제고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곧 준공예정인 제2검정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성림축산은 앞으로도 검정소에 계속 출품은 하되, 고능력종돈이 나올 경우엔 적극 구입하고, 종돈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에서 초고능력종돈은 계속 수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국산 돼지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지체의 불량과 번식성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영국에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배합비대로 사료를 주문생산해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홍성태 사장은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돈개량을 위해 성림축산이 더욱 많은 부분에서 활동해 주길 기대해 본다. **■**